

꿈과 미래가 있는 회사, 안전에서 부터

STX조선주식회사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진해에는 벚꽃의 화려함을 지우려는 듯 축축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짹짹한 바다 내음을 맡으며 찾아간 곳은 경남 진해시 원포동에 위치한 STX조선주식회사, 뿌연 안개 속에 거대한 붉은 색 골리앗 크레인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 안전을 바탕으로 세계 6위 조선소, STX조선

STX조선은 1962년에 설립되어 부산과 진해에서 40년간 약 500여척의 선박을 건조하였으며, 그 우수한 기술력과 인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조선해양대국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대표적 조선소 중에 하나이다. 현대적인 첨단 생산시설과 기계화, 자동화 생산방식



은 물론, 하나의 Dock에서 연간 24여 척의 선박을 생산하는 최신 건조공법인 세미탠덤 방식을 채택하여 높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각종 고부가가치선의 확대와 꾸준한 연구개발로 경쟁력을 갖추고, 투명경영을 실현하며, 꿈과 미래가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창의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중심경영, 속도경영, 기술경영의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안전한 작업장 건설을 통한 근로자들과의 신뢰와 만족으로 21세기 World Best 조선소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 자율안전의 시작과 끝 안전활동평가제도

STX조선에서는 자율안전을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활동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 사업장의 작업라인을 40개 파트로 세분하여 각 파트의 안전활동에 대해 매월 평가하여 우수한 파트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시상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크게 안전평가와 예방평가, 감점평가로 나뉘어져 있고 각 항목은 안전사고 발생건수, 시정지시 건수, Near Miss Report, 정기



안전교육 참여 정도, 안전위반스티커나 경고 건수 등의 세부적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작업난이도와 작업인원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점수 항목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매월 평가된 자료는 E-mail을 통하여 경영진은 물론 전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의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STX조선에서는 약 52개사의 협력사에 4,2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안전활동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적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한 협력사를 위해 안전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상·하식 안전시정조치가 아니라 수평적 위치에서 협력사의 안전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본사의 안전요원이 협력사를 전담하여 원활한 안전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전담된 본사의 안전요원은 '안전도우미'라는 이름으로 본사에서 추진하는 안전활동을 이해시키고 협력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과 함께 협력사의 제안이나 고충을 반영하기도 한다.

■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인 동시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조선업

STX조선의 생산 공정을 살펴보면 강재하역 및 전처리 → 절단 및 가공 → 조립 → 도장 → 의장 → 탑재 → 시운전 → 인도 공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거대한 배를 건조한다는 것은 흡사 견고한 건축물을 짓는 것과 유사한데, 그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이면서 동시에 대단위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계, 전기, 화공 등 종합 기술의 집합체로 협소한 작업공간에서의 작업이나 고소작업, 중량물의 운반 및 취급작업, 도장작업, 용접작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추락, 협착, 충돌, 감전, 폭발 등 모든 유형의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환경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제도나 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규입사자의 재교육 시스템이다. 입사 후 6개월 미만의 신규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6개월 미만자에 대한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술선수범의 경영진

STX조선에서는 매주 특별한 안전점검이 있다. 매주 화요일에 이루어지는 “임원 안전 Patrol 및 에너지 누설 특별점검 활동”이 그것이다. A(사장)조, B(부사장)조, C(전무)조로 나뉘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 달에 한번이 아니라 매주 임원들이 술선수범하여 안전점검을 한다. 이는 그 만큼 경영진부터가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넘어서 HSE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존중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강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STX조선주식회사, 조선업계 최초로 무재해 300만 시간 달성하고 아울러 세계 3위의 조선소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임재근 기자〉